

영업중단 손실, 고객불편도 증가 잇따른 ‘테러위협’ 유통가 ‘몸살’

신세계百貨 곳곳, 하남 스타필드 등
테러 신고접수… 경찰 수색나서

3시간 영업 중단시 5~6억 피해
전문가, 재발방지 강력처벌 필요

유통업체가 잇따른 테러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업을 장시간 중단하는데 따른 손실과, 고객 불편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유통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에 테러를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6일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 11일 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달 2일엔 신세계면세점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모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물 테러가 반복될 때마다 유통업체의 피해는 수 억원에 이른다. 허위 신고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위험 가능성 때문에 고객을 대피시키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테러 예고로 영업을 3시간가량 중단되며 평일 매출 기준 5~6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직접적인 피해보단 사회적 피해와 고객의 불편함이 만든 간접적인 피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수천 명에 달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들.

/뉴스시스

는 고객과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일 테러 예고에도 면세점은 정상 운영했지만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폭발물 테러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2933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협박범이 느끼는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얘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협박범은 자신이 올린 글 하나에 경찰 수백 명이 통제되는 걸 보며 신나고 짜릿한 게임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숨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올해 3월 공중합박죄가 신설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은 여

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첫 판례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 형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 말까지 공중합박죄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1명뿐이다. 5명은 약식 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태료는 한 달 안에 고지서가 나오기에 실효성이 있다”며 “법을 개정해 2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청소년 범죄는 보호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모방 범죄자들이 처벌을 지켜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세븐일레븐, 위챗페이 결제시 쿠폰 지급

롯데면세점·위챗페이와 맞손

세븐일레븐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롯데면세점, 위챗페이와 손잡고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프로모션 기간(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에 위챗페이를 처음으로 결제하면 다음 방문 시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7위안(약 1400원) 쿠폰과 롯데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한 50위안(약 1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위챗페이 앱 내 쿠폰함에 자동 지급되며, 세븐일레븐에서는 35위

안(약 7000원) 이상 결제 시, 롯데면세점에서는 350위안(약 7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K-문화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하반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의 관심도가 높은 IP나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K-편의점 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아동준마케팅팀 브랜드 마케팅담당은 “최근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 국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챗페이와 이번 업무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 추석 앞두고 ‘CRAZY 4일 특가’

생물오징어·창녕 간마늘 등 50% ↓

홈플러스가 추석을 앞두고 ‘CRAZY 4일 특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갈비 유니버스’, ‘세계 미식여행 이탈리아편’ 등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12브릭스 유명산지 햇홍로사과 구매 시 1000점, 생물 오징어 및 알큰 햇간마늘을 구매 시 500점을 적립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국내산 생물 오징어와 서산, 창녕에서 재배한 알큰 햇간마늘은 50% 할인해 각각 2900원, 2990원에 선보인다.

이달 10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에서는 캐나다산 보맥돼(보리 먹인 돼지) 삼겹살·목심을 40% 할인하고, 10브릭스 큰 추희자두는 3000원 할인한다. ‘무항생제 온가족 닭볶음탕용’은 20% 저렴하다.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방장 햇꽃게를 전 점포 10톤 한정 990원에 내놓고, 4일과 5일엔 추가 인하해 780원에 선보인다.

갈비는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LA식 꽃갈비’와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짬갈비’를 각각 1만원 할인한다. ‘한돈 일품포크 갈비’와 ‘보맥돼 등갈비’도 4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9만명에 유산균 증정… hy, 정기구독 이벤트

고객 올바른 건강관리습관 형성 도와
라이프 스타일 맞춰 배송주기 설정

hy가 정기구독 경쟁력을 활용한 ‘프레딧 정기구독 대(對)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hy만의 정기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구독 서비스의 편리함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hy는 ‘프레딧 정기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자체 배송 조직인 ‘프레

시 매니저’와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발효유, 간편식, 식자재 등 다양한 품목을 무료 배송한다. 고객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배송 주기 설정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상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 정기구독 제도 ‘월간 영양’을 선보였다.

이벤트 진행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신규 고객 선착순 9만 명에게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리브 유산균 플러스 이문(1개월 분)’을 증정한다.

해당 기간 정기구독을 신청한 고객에게 140만원 상당 사은품을 0원에 구매 가능한 래플 응모권을 지급한다. 고객은 생활가전, 주방용품 등 원하는 상품 9종 중 1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무작위 추첨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600명의 정기구독 고객을 추첨해 총 6000명에게 프레딧 제품 교환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프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컬리 “이연복 셰프 요리 RMR로 만나요”

오는 8일까지 ‘미식관’ 오픈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미식관’을 오픈하고 대표 셰프의 레스토랑간 편식(RMR)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달 8일까지 열리는 미식관의 ‘명

예의 전당’에서는 ‘목란’ 이연복 셰프와 ‘우동카텐’ 정호영 셰프, ‘포노 부오노’ 김태성 셰프, ‘마마리’ 송하슬람 셰프, ‘티엔미미’ 정지선 셰프, ‘윤서울’ 김도윤 셰프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목란과 우동카텐은 각각 2020년과

2021년 컬리에 입점해 해당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목란은 누적 판매량 700만 개에 달하고 우동카텐의 오리지널 우동은 후기수만 1만7000여 건에 달한다.

새롭게 합류한 셰프의 RMR 브랜드도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고 있다. 김도윤 셰프의 ‘윤서울’은 면류 3종에 더해 특제 양념 소스로 만든 불고기 상품을 추가로 론칭했다. /손종욱 기자



동서식품이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이하 ‘카누 캡슐 테일러’)을 운영한다. /동서식품

동서식품 “취향저격 커피캡슐 찾아요”

종로 북촌서 ‘카누 캡슐 테일러’ 운영
31종 캡슐 중 한개 골라 무료로 시음

동서식품이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이하 ‘카누 캡슐 테일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카누 캡슐 테일러’는 카누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과 타 기기 호환 캡슐 등 다양한 카누 캡슐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맞춤형을 제작하는 테일러 솜씨처럼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커피 캡슐을 발견할 수 있다.

‘카누 캡슐 테일러’ 리셉션으로 입장하면 담당 테일러가 매칭된다. 보유한

캡슐 커피 머신에 따라 제공되는 대표 캡슐 3종을 맛보며 산미, 바디감 등 자신의 커피 취향을 기록할 수 있는 ‘캡슐 테일러링 노트’를 작성한다. 본인의 취향을 확인한 후 31종의 캡슐 정보가 표시된 캡슐 탐색 존에서 자유롭게 캡슐을 탐색한 뒤 중 원하는 캡슐 하나를 고르면 해당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1만5000원 체험권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나카, 마들렌, 휘낭시에 등 원하는 커피에 어울리는 패어링 디저트 2종으로 구성된 ‘카누 한상’과 함께 맞춤 캡슐 7종으로 구성된 ‘MY 테일러 패키지’, 카누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쿠폰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